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51장** **다같이**

1.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후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2.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3.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4.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로마서 12:9-15 (표준새번역)** **인도자**

- 9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 10 육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 11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 12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 13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 14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 15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설 교 **“공감능력”**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자녀를 위한 기도(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2. 부모님을 위한 기도(자녀들)

하나님! 아빠와 엄마를 통해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자녀들을 위한 말씀 요약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고통과 슬픔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을 붙잡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랑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공감능력”

(로마서 12:9-15)

요즘 TV에는 관찰 예능이 유행이다. 인기 있는 고정 출연자는 화려한 외모나 입담을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공의 형편이나 마음을 읽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화려한(?) 감성의 소유자다. 일명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통해 시청자들은 주인공과 일체감을 느낀다.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쁜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공감 능력’이 작동하는 까닭이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뇌에는 남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뉴런’(거울 신경세포)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뇌 속에 ‘거울 뉴런’을 심어줘서 타인의 마음과 심정을 알 수 있게 하셨다. 한때 우리 사회에 소통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소통이 아니라 공감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대에 로마서 12장은 우리들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권고한다. ▶성경학자들은 로마서를 교리적인 책으로 본다. 바울의 성격처럼 전체적으로 내용이 정교하고 논리적이다. 그런데 12장 이후부터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정돈되지 않고 산만하다고 지적한다. 일정한 주제 없이 이것저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상이나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공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모자이크처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을 교리적 결론 대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는 문안으로 끝낸다.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가. 바로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과 죄를 깊이 공감해 주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 때 가치와 의미와 경제성을 계산하고 행동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사람을 붙잡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었다. 게다가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실 때 그의 고통과 연약함에 대해 공감하시고 함께 울어주셨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느끼신 슬픔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 현시대를 사는 교회와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런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는 긍휼의 마음이다. 대한민국은 갈등이 많다. 사람은 많고 기회가 적은 나라인지라 다툼이 심하고 남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패배자가 되는 험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양보가 없고 경쟁은 치열하다. 내 것만 집중하고 사는 현대 사회에서 이웃의 안타까운 처지를 보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다. 바울이 로마서 전반부에서는 구원의 교리를 차분하게 설명하고, 후반부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 권고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구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당부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칙은 긍휼이다. ▶둘째는 죄 사함이다. 죄인인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다.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겪은 후에 욕이 고백했던 마지막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회개하나이다 (욥 45:5, 6).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있는지 자성해 보라. 피부에 상처를 입으면 그 고통이 온몸에 느껴지는 것처럼 타인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아픔도 기쁨도 함께 느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영적 나병에 걸린 것과 진배없다. 우리 교회가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공감 능력’이 더 깊어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아픔과 기쁨을 공감하는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고 공감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